

영화 투자배급사도 생존 경쟁...드라마사업 진출 배경

코로나19로 지난해 상업영화 평균 수익률 -34.1%

국내의 OTT 업체 성장 등으로 드라마 수요 ↑

IP 활용해 콘텐츠 제작으로 돌파구 마련 안간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화 투자배급사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드라마 제작 등의 IP(지식재산권) 확보 및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업체가 성장하고,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영화관 위주의 콘텐츠 개발보다는 다채로운 IP를 활용해 유통 채널 다변화에 맞춘 콘텐츠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미디어 그룹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의 콘텐츠 제작사업 계열사 스튜디오엔뉴가 올해 첫선을 보이는 드라마 '어느날 우리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가 tvN을 통해 오는 10일 처음 방송된다.

100일만 살 수 있는 '동경'과 '멸망'이라 불리는 특별한 존재의 판타지 로맨스 박보영과 서인국이 주연을 맡았다.

NEW가 제작한 첫 드라마는 2016년 KBS 2TV에서 방영한 '태양의 후예'다. 당시 NEW는 드라마 TF팀을 구성 후 100% 사전 제작 방식을 택하는 강수를 뒀다.

영화 투자와 배급을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살려 기존의 드라마 유통 구조를 깬 해외 선판매를 필두로 하여 중국 OTT 동시 방영이라는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드라마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후 드라마 제작을 전담할 부서를 만들어 tvN '오마이베이비', SBS '날아라 개천용' 등의 다양한 드라마 라인업을 구축하며 콘텐츠 제작 사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19년 드라마 제작을 발표한 쇼박스도 웹툰으로 잘 알려진 '이태원 클라쓰'를 첫 작품으로 제작했다. '이태원 클라쓰'는 2020년 1월 방

영 후 대중성과 작품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다 수출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 소위 대박을 터트렸다.

최근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수 드라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존의 기획, 제작 역량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CJ ENM은 2016년 드라마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며 스튜디오드래곤을 설립했다. 여러 제작사 인수를 통해 국내 최고 작가와 연출자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전문적인 드라마 제작사로 꼽힌다.

주로 tvN과 OCN 드라마를 제작했으나 최근에는 네이버 웹툰으로 유명한 작품 '스위트홈'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 지난해 말 세계 13개국에서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줬다.

롯데컬처웍스의 콘텐츠사업부문인 롯데엔터테인먼트도 기존 영화 위주의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드라마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 출신 유명 PD를 드라마 사업 부문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현재 웹툰 '유쾌한 왕따' IP를 활용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추가 드라마를 기획 개발하는 등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다.

이 밖에 '승리호'의 배급사 메리크리마스도 10대와 20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웹툰 '연애혁명'의 IP를 확보해 2020년에 카카오톡TV와 네이버 시리즈ON에서 동시에 공개했고,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는 KBS 2TV '안녕? 나야'

를 통해 드라마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영화 투자배급사들의 드라마 사업 진출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영화산업의 침체로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관 관객 수는 전년 대비 73.7% 감소한 5952만명으로 통합전산망이 구축된2004년 이후 최저치였다. 영화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3% 감소한 5104억 원으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순제작비 30억원 이상 상업영화 29편의 평균 추정수익률은 -34.1%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영화관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배급사들이 영화관 플랫폼만으로 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한국의 영화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러 플랫폼에서 콘텐츠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드라마 수요는 많아진 반면 영화산업은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이 톨니 바퀴처럼 맞물리는 특성상 단기간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서다.

지난해에도 주요 투자배급사들은 영화 투자 및 제작을 진행했으나 우선 올해는 지난해 공개하지 못한 영화들의 개봉을 우선 목표로 두고 시장 상황을 살피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동일한 IP 하나로 영화와 드라마 혹은 제3의 콘텐츠라는 멀티 유즈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영화 투자, 유통 쪽으로 큰 무게를 두었다면 이제는 자체 IP 개발로 양질의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면서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플랫폼 유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스템처럼



당신의 일생, 단 하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가까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영화 투자배급사에서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서준 언택트 팬미팅 티저 영상 공개

오는 15일 카카오톡TV 통해 생중계

배우 박서준의 언택트 팬 미팅 '박서준, 콤마(Comma)'의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티저 영상이 8일 공개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5일 오후 5시 카카오톡TV를 통해 생중계되는 박서준의 언택트 팬미팅을 앞두고, 이번 팬미팅의 콘셉트를 설명하는 티저 영상을 카카오톡TV SNS를 통해 공개했다.

연두빛 나뭇잎이 흔들리는 배경에 등장한 박서준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박서준은 분위기 있는 내레이션으로 "지금쯤 잠이 쉬어 가도 된다.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는 멘트를 전달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팬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을 예고했다.

'박서준, 콤마'에서는 드라마와 영화부터 음악 프로그램 MC까지 10년 동안 종횡무진 활약했던 박서준의 필모그래피를 되새기는 시간은 물론 10년 전의 20대 박서준과 현재의 30대 박서준에 대한 이야기도 담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카카오톡TV SNS를 통해서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응원 메시지를 모집 중이다. 박서준 배우에게 전하고 싶은 간단한 메시지를 사진과 응원 영상으로 구성해 전달하면 팬 미팅 현장에서 이를 공개한다.

이번 언택트 팬미팅은 국내에서는 카카오톡TV를 통해, 일본에서는 한류전문채널 KNTV를 통해, 필리핀에서는 1위 이동통신사 SMART에서 생중계된다. 그 밖의 해외 지역에서는 전 세계 3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글로벌 K팝 대표 미디어 원더케이(1theK)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설인아, KBS 쿨FM '불륨을 높여요' 스페셜 DJ

탤런트 설인아가 '불륨을 높여요' 스페셜 DJ로 나선다.

9일 소속사 위엔터테인먼트는 "설인아가 오는 11일 방송되는 KBS 쿨FM '강한나의 불륨을 높여요'에서 스페셜 DJ로 진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설인아는 앞서 MBC '섹션TV 연예통신' MC로 진행 솜씨와 재치 넘치는 센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날 스페셜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자들과 만나는 설인아는 다양한 토크와 에피소드로 재미를 선사하며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강한나의 불륨을 높여요'는 오는 11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KBS 쿨FM과 라디오 'KBS 퐁' 앱 등에서 만날 수 있다.

'킹덤' 스트레이 키즈→비투비, 코로나19 음성 판정

'SF9'·'아이콘'·'더보이즈' 일부 자가격리

엠넷의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킹덤: 레전더리 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아이돌 출연진들이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다만 일부 멤버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돌입한다.

'스트레이 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7일 "스트레이 키즈 멤버 전원과 스태프들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투비'도 멤버 및 스태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비투비는 예정돼 있던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이티즈'도 멤버 전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예정된 스케줄을 변동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SF9', '아이콘', '더보이즈'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일부 멤버는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SF9은 지난 6일 선제적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SF9 및 당사 스태프들의 검사 결과 전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SF9 멤버

유태양의 경우 자가격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 멤버들은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도 "아이콘 멤버 김동혁은 지난 6일 선제적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했고,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김동혁은 18일 오후 12시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하며 향후에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크래켄엔터테인먼트도 "더보이즈 및 스태프 모두 검사 결과 전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주연은 18일까지 자가격리를 진행하게 됐다. 더보이즈는 이후 예정되어 있던 공식 스케줄을 18일까지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엠넷의 '킹덤: 레전더리 위'에 출연한 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 출



연진이 검사를 받았다. 엠넷 측은 지난 6일 "'킹덤' 녹화는 문진표 작성, 발열체크, 출입문 소독기 설치 등 사전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방역 당국 지침에 따른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윙스, 디아크 '배드 키드' 피쳐링...피네이션 합류 후 첫 행보

오는 13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 통해 발매

래퍼 스윙스(SWINGS)가 디아크(D.Ark)의 신보에 피쳐링으로 지원 사격한다.

피네이션(P NATION)은 지난 7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디아크의 미니음반 '지니어스(GENIUS)'의 두 번째 트랙인 '배드 키드(Feat. 스윙스)'의 곡명과 피쳐링 주자를 공개했다.

디아크는 지난해 말 피네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스윙스는 최근 피네이션 합류 소식을 공식화했다.

특히 스윙스에게는 이번 앨범 참여가 피네이션에서의 첫 행보라 많은 음악 팬들이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총 5곡이 수록된 디아크의 미니음반에는 창모에 이어 스윙스가 피쳐링에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공개될 3-5번 트랙명과 피쳐링진에도 궁금증이 더해진다.

13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